

## “AI·우주·에너지로 전남미래 100년 설계한다”



광남초대석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전남개발공사가 창립 이래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장충모 사장 취임 이후 개발공사는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10년 연속 흑자 달성, 역대 최소 부채비율(28.4%) 기록이라는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창립 최초 100억원의 개발 이익을 전남도에 배당하며 ‘도민 환원 경영’을 실현했다. 개발공사는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단지 조성 등 전남의 산업 지도를 첨단화한다. 또 파격적인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으로 인구 유입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2026년을 ‘AI·에너지 수도 전남 미래성장 선도’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남의 대도약을 이끌 장충모 사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담대한 비전을 들어봤다.

-취임 후 경영 혁신을 통해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성과는 무엇인가.

△지난 3년여의 시간은 전남개발공사가 명실상부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국 일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토대를 굳건히 다진 기간이었다. 무엇보다 재무 건전성 강화와 공적 역할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창립 이래 최초의 도민 배당 100억원 실현이다. 공사가 창출한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10년 연속 흑자 경영을 이어오면서 부채비율을 역대 최소인 28.4% 수준으로 낮춘 안정적인 재무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

다. RE100 산단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 주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해 전남이 AI와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도록 선도할 것이다.

셋째, ‘전남형 주거안정망 확대’에 나선다. 만원주택과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는데 최우선을 둘 것이다. 주거복지 분야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민 체감 행복공동체 실현’이다. 특히 ESG 경영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적 가치로 내재화할 것이다. ‘빛 나눔! 안전 개선 프로젝트’ 등

지방소멸 위기 일자리·주거로 극복...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  
창립 이래 최초 도민 배당 100억 실현·10년 연속 흑자 경영 달성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우주항공·해상풍력 등 첨단 인프라 구축

했다. 공사의 재무적 성과가 곧 도민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 것이다.

또 대외적인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물론, 적극 행정 분야 국무총리상, 주거복지 우수사례 장관상 등 10여개가 넘는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는 개발공사의 경영 투명성, 혁신성, 도민을 위한 공공성이 높게 평가받았음을 의미한다. 개발공사의 위상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2026년 ‘AI·에너지 수도 전남 미래성장 선도’를 경영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설명해 달라.

△2026년은 전남개발공사가 미래 100년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도민 행복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파트너로 거듭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4대 추진 방향과 10개 중점 과제를 설정했다.

첫째, ‘지역특화 미래도시 구현’이다. 담양, 화순, 광양을 중심으로 정주 여건과 일자리가 연계된 지속형 거점도시 개발을 본격화한다. 단순한 택지가 아닌 지역 특색을 살린 고품격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다.

둘째, ‘AI·에너지 대전환 선도’에 나설 계획이

민·관·공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ESG 경영 활동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해 지역 사회 전반에 ESG 가치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다.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 전략이 궁극하다.

△지금만큼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다. 전남이 가진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은 AI 시대에 엄청난 경쟁력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강점을 살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오픈AI, SK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전남에 동지를 틀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그 자체로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지만 이를 통해 연관 IT 기업들이 들어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매우 크다.

또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나주는 에너지·신소재, 고흥은 우주항공이라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이들 산단을 기획 단계부터 RE100 실현이 가능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올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AI·우주·에너지 수도 전남 미래성장을 선도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설계해 ‘탄소 국경제’ 등 무역 장벽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만들고 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개발공사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지역 환원 측면에서도 중요해 보이는데 추진전략은.

△전남의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공 자원’이 되어야 한다. 과거 민간 주도의 개발이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낳았다면, 개발공사는 ‘공공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모델’을 통해 그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공공이 직접 주도하는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은 이를 증명한다. 영광 약속해상풍력(4.3MW)은 지난 4월 상업 운전을 개시해 공공 주도 해상풍력의 첫 성공 사례로 기록됐으며, 완도(400MW)와 신안(323MW)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이익 공유 구조’다. 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활용해 도민들에게 배당하거나, 지역 사회의 에너지 복지 사업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익 공유형 태양광·풍력 사업을 확대해 ‘전남형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관련 법규·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남의 깨끗한 에너지가 도민 모두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

환 구조를 반드시 완성하겠다.

-전남의 최대 과제인 ‘인구소멸 위기’에 맞서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떠한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가 필수적이다. 청년이 돌아오고 기업이 찾아오게 하려면 살 만한 집과 일할 곳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거와 일자리가 연계된 입체적인 전략을 추진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파격적인 주거 안정 정책이다. 현재 인구감소 지역인 진도와 고흥은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신안·영암·강진은 착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 나아가 광양, 무안 등 시 단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또 단순한 택지 개발이 아닌 ‘기업친화형 거점역 중소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담양 보춘지구는 음식특화단지과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화순 삼천지구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배후 도시로서 스마트 정주 환경을 갖춘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인구 유입의 첫걸음이라고 확신한다.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기 위한 ESG 경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은.

ESG 경영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민간 협력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먼저 지자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와 협력해 ‘함께 밝혀요! 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해 농어촌과 취약지역의 야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민 안전과 에너지 복지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또 도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ESG 경영활동 아이디어 공모전을 운영해 탄소 저감, 자원 순환 등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공사와의 협력 모델로 사업화해 ESG 확산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부서별 탄소 감축 성과, 안전사고 감소와 사회적 가치 창출, 윤리·준법 경영, 이사회 다양성 등을 내부 성과평가(KPI)에 연계해 조직 전반의 책임경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

-경영 목표 실현을 위해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혁신적인 변화, 특히 AI·디지털 전환 분야는 무엇인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2026년에는 ‘AI·디지털 기반의 경영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해 효율성은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는 과감히 걷어내겠다. 이를 통해 모든 사업 과정을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 아울러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 교육을 정례화해 도민들께 세계적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동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겠다. 청렴과 안전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또한 강화해 도민의 신뢰를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

-전남개발공사의 궁극적인 비전과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전남개발공사는 이제 전남도의 현재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미래 성장의 설계자’가 되고자 한다. 인구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일자리’와 ‘주거’라는 두 축으로 극복하고, ‘AI’와 ‘청정 에너지’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해 전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저를 비롯한 전남개발공사 모든 임직원들은 ‘도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 개발 이익을 지역 사회와 나누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며, 첨단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전남개발공사가 만들어갈 활기차고 역동적인 전남의 미래에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장충모 사장은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장충모 사장이 여수 죽림지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창립 20주년 행사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장충모 사장.